

# 기독교 청소년 12%만이 부모와 신앙적 대화 자주 나뉨!

종교인구의 하락, 교회에 대한 낮은 호감도와 불편한 사회적 시선은 개신교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현상의 고민까지 더해져 교회는 다음세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기독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조사한 결과에서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의 신앙이 어른보다 더 취약해진 것을 확인했는데(넘버즈101호 참조), 팬데믹 종료 직후 조사한 기독교 청소년 신앙 의식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개신교 청소년 10명 중 4명(40%)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장년층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1명이라도 기독교인을 부모로 둔 비율은 86%로 가족 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자주 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이번 <넘버즈 214호>에서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교회활동과 인식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회의 다음세대 전략을 고민하고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24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 의식 조사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교회 출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500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방법	성별/학교급별/권역별 비례할당 추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기준)
표본 오차	±4.38%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조사 기간	2023년 5월 12일 ~ 5월 24일(13일간)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 01

##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 변화]

### 교회학교, 일반 학령인구 대비 감소 속도 2배 빨라!

- ▶ 초중고 학생의 인구 변화를 일반 초중고 학생과 교회학교 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반 학령인구의 경우 2013년 653만 명에서 2022년 527만 명으로 10년 전 대비 19% 감소한 반면, 교회학교 학생(예장 통합)은 2013년 34만 명에서 2022년 21만 명으로 10년 새 37%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일반 초중고 학생 감소율보다 2배가량 더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10년간 일반 학령인구는 4%만 줄어든 것에 반해, 교회학교는 무려 36%가 줄어 교회학교 초등부에서 매우 큰 위기를 보이고 있다.

[표] 초중고 학생인구 변화\*  
(일반학생 vs 교회학교 학생, 만 명)

구분	2013	2022	증감률
일반 학령인구	653	527	-19%
교회학교인구 (예장통합)	34	21	-37%

\*자료 출처: 일반 학령인구: 교육부, '2023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3.08.30.  
교회학교인구: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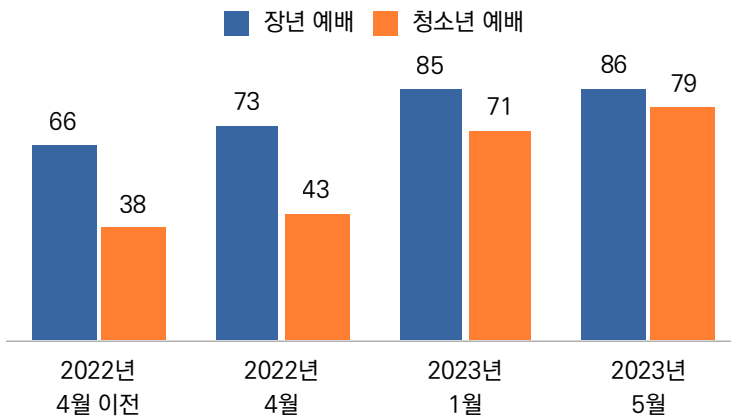
[표] 교회학교별(예장통합) 인구 변화 (일반 학령인구 비교, 만 명)

구분		2013	2022	증감률
0~6세	일반 영유치아	326	220	-33%
	교회 영유치부	10	7	-42%
초등 학생	일반 초등생	278	266	-4%
	교회 초등부	18	11	-36%
중고등 학생	일반 중고생	370	261	-30%
	교회 중고등부	16	10	-38%

## ◎ 청소년 현장예배 회복도, 장년보다 더뎌!

- ▶ 코로나 이전 대비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을 100%로 봤을 때 2023년 5월 기준 장년은 86%, 청소년 예배는 79%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 예배 회복도가 장년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들어 '장년'의 현장예배 참석률은 큰 변동 없이 80% 중반을 유지했고, '청소년 예배'의 경우 올 1월보다 현장 예배 참석률이 8%p 소폭 상승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주일 현장 예배 참석 정도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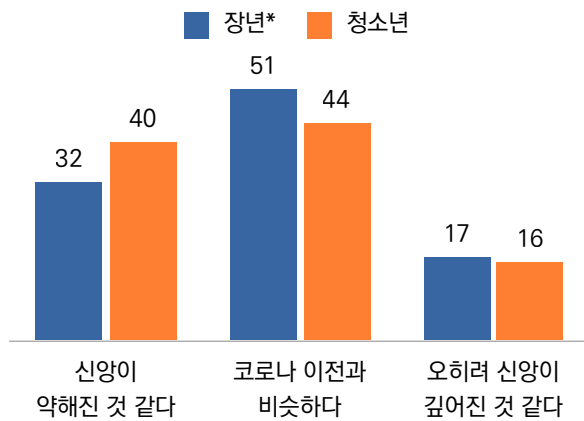
\*자료 출처: 2022 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2023.0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 02

## [코로나 이후 신앙 의식 변화] '코로나 이후 신앙 약해졌다', 청소년이 장년보다 심해!

- ▶ 코로나로 인한 기독 청소년의 신앙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 44%,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40%,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16%로 신앙 약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교회 출석 장년층보다도 신앙이 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기독 청소년 신앙 수준의 변화 (장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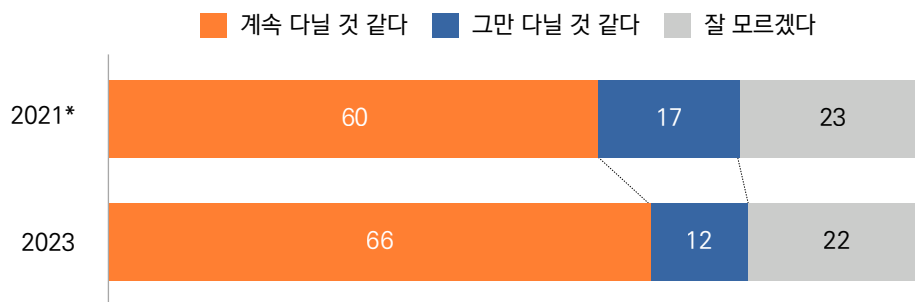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 2023.06.10. (전국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05.31.)

### ◎ 개신교 청소년 3명 중 1명, '성인이 되면 교회 안 다닐지도'!

- ▶ 교회 출석 청소년들에게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은지를 묻은 결과, 전체의 66%가 '계속 다닐 것 같다'고 응답해 2021년 조사보다 향후 교회 출석 예상률이 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만 다닐 것 같다'는 의견은 2021년 17%에서 2023년 12%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신교 청소년 3명 중 1명(34%)은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갈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그만 다닐 것 같다+ 잘 모르겠다)는 인식을 보여 이들의 불안정한 신앙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그림] 성인이 된 후 교회 출석 예상 (교회 출석 기독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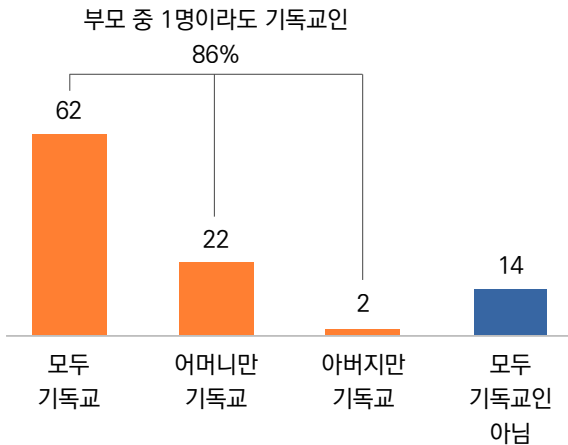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2021.04.08.-04.23.)

# 03

## [가정 내 신앙생활] **기독교 청소년 중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 14%에 불과!**

- ▶ 기독교 청소년의 부모 종교는 '부모 모두 기독교인' 62%, '어머니만 기독교' 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중 1명 이상이 기독교인 비율이 총 86%였다. 대부분의 기독교 청소년은 부모의 종교 영향으로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가족 종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인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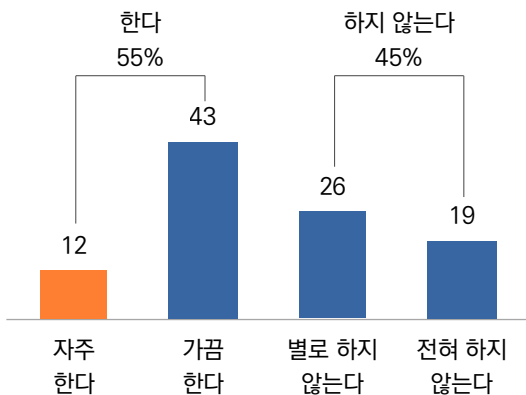
[그림] 부모님 종교 (기독교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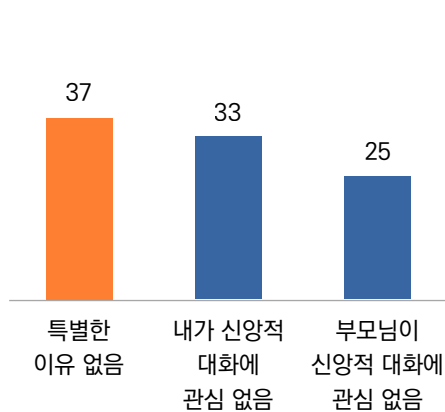
### ◎ 기독교 청소년 12%만이 부모와 신앙 대화 자주 나뉨!

- ▶ 그렇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 청소년들은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55%가 '한다'고 응답했지만 '자주 한다'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신앙의 특성이 삶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자주한다' 응답자인 12%만이 실제로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이 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가 신앙적 대화에 관심 없음'(33%), '부모님이 신앙적 대화에 관심 없음'(25%) 등의 순이었다.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청소년 또는 부모가 신앙적 대화에 관심이 없는 셈이었다.

[그림] 부모와 신앙적 대화 여부 (기독교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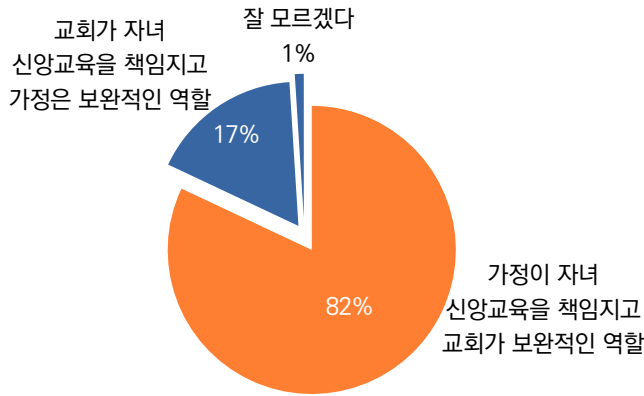
[그림] 부모와 신앙적 대화 하지 않는 이유 (기독교 청소년, 상위 3위, %)



## ◎ 목회자 대부분, '자녀 신앙교육의 중심은 가정이다' 동의

- ▶ 이번에는 목회자(담임목사)를 대상으로 다음세대 교육 방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목회자 대부분(82%)은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교회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교회가 자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가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 ▶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다음세대 교육이 교회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가정 중심 신앙 교육 방향으로 추진/실행하는 힘은 아직까지 미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다음세대 교육 방향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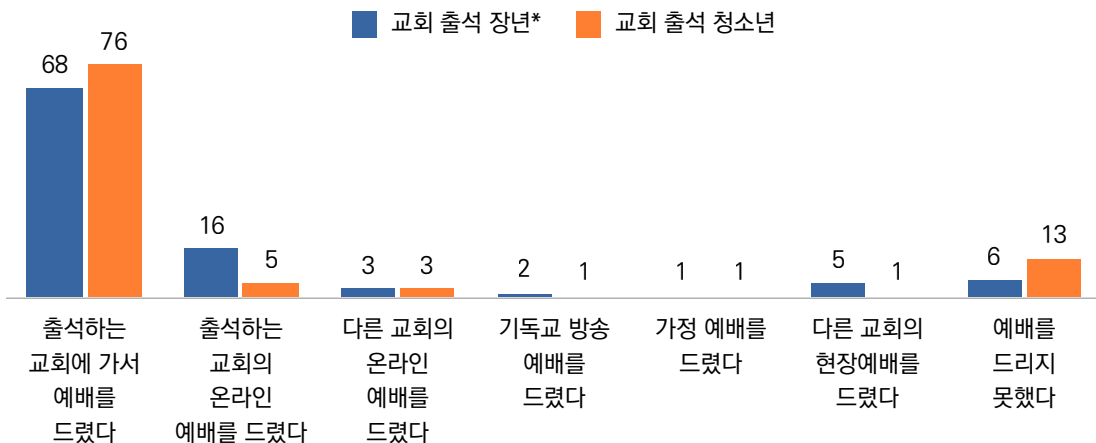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 2023.06.10. (전국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 04

## [교회와 예배 생활] 청소년 예배 형태, 장년 대비 현장 예배 강해!

- ▶ 청소년(교회 출석자)의 지난 주일 예배 형태는 '출석교회 현장 예배'가 76%로 가장 높았고,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 5%,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 3% 순으로 나타났다.
- ▶ 장년(교회 출석자)의 예배 형태와 비교해보면 현장예배 참석율은 더 높고, 온라인 예배는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장년의 경우 예배의 선택지를 좀 더 넓게 보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현장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 예배의 경우 온라인 예배가 없어서 현장 예배 비율이 상승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지난 주일 예배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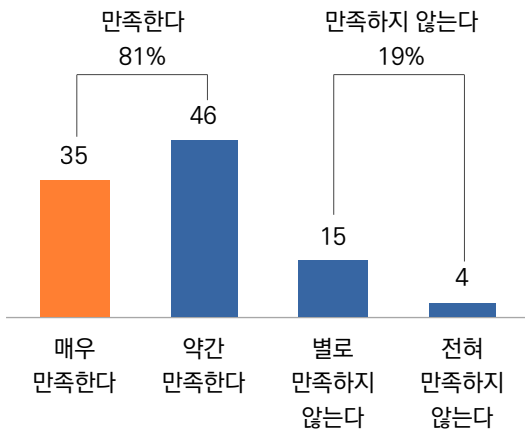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 2023.06.10. (전국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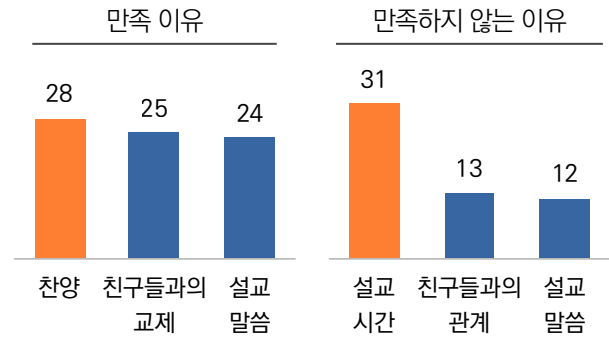
## ◎ 예배 만족 이유? ‘말씀’보다 ‘찬양’, 불만족 이유? ‘말씀’보다 ‘시간’!

- ▶ 청소년들의 예배 만족도(매우+약간 만족한다)는 81%로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3명 중 1명이 ‘매우 만족’(35%)이라고 응답했다. 예배 만족 이유로는 말씀(24%)보다는 ‘찬양’(28%)이 높게 응답됐고, 예배 불만족 이유로는 ‘설교 시간’을 31%로 가장 높게 꼽았다.

[그림] 예배 만족도 (기독교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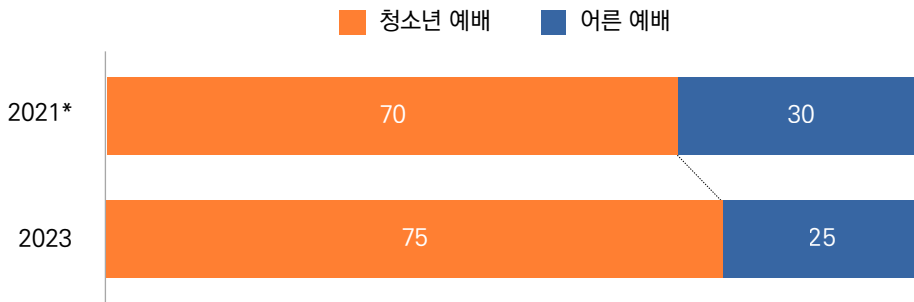
[그림] 예배 만족 이유 vs 예배 만족하지 않는 이유 (각각 예배 만족/불만족자, 상위 3위, %)



## ◎ 기독교 청소년 4명 중 1명, 청소년 예배 대신 어른 예배 드려

- ▶ 청소년 예배가 있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주일 청소년 예배를 드렸는지 혹은 어른 예배를 드렸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 4명 중 3명(75%)은 ‘청소년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4명 중 1명(25%)은 청소년 예배가 아닌 ‘어른 예배’를 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21년 조사와 했을 때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5%p 가량(70%→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난 주일 청소년 예배 여부 (청소년 예배 있으며 지난 주일 출석교회 예배한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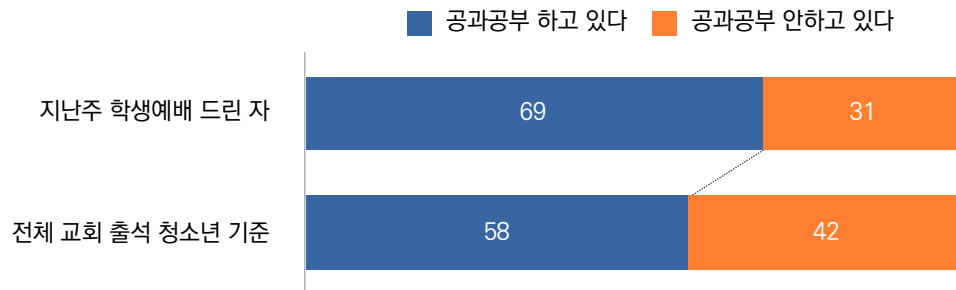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2021.04.08.~04.23.)

## ◎ 청소년 예배 참석자 중 31%는 공과공부 안 한다!

- ▶ 공과공부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공부뿐 아니라 친교/나눔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신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체 개신교 청소년 중 공과공부 하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6명(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의 공과공부 이탈률도 31%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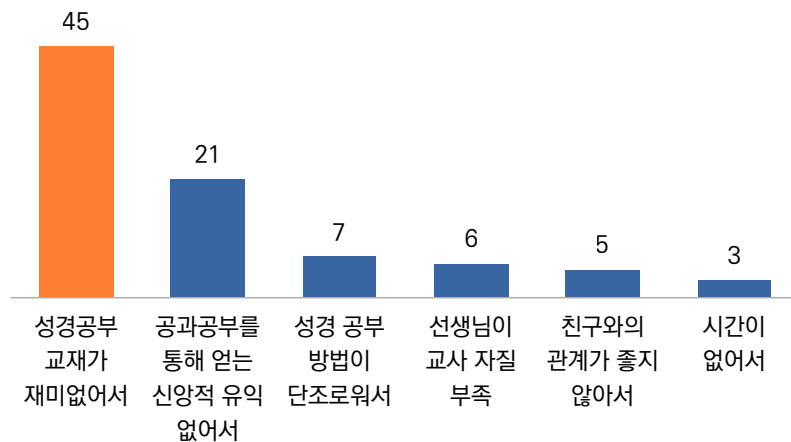
[그림] 공과공부 하고 있는 비율 (기독교 청소년, %)



## ◎ 공과공부 안 하는 이유? 절반 가까이 '교재가 재미없다'!

- ▶ 공과공부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절반 가까이(45%)가 '성경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공과공부를 통해 얻는 신앙적 유익이 없어서' 21%, '성경 공부 방법이 단조로워서' 7% 등의 순이었다. 말씀을 기초로 하되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과공부 교재의 마련/교구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겠다.

[그림] 공과공부 하지 않는 이유 (공과공부 안하고 있는 청소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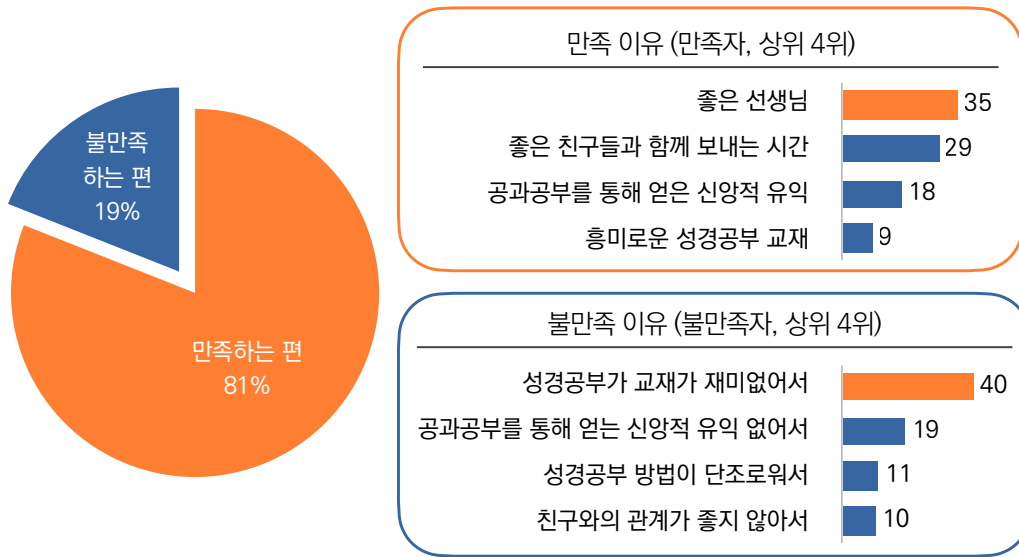




## ◎ 공과공부 만족 이유, 공부보다는 관계 영향 더 커

- ▶ 공과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만족(매우+약간) 81%, 불만족(매우+약간) 19%로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 ▶ 그렇다면 공과공부에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선생님’이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29%, ‘공과공부를 통해 얻은 신앙적 유익’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과공부 자체를 통해 얻는 신앙적인 유익도 있지만 이보다는 좋은 선생님과 친구 관계가 더 높은 만족도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 ▶ 공과공부 불만족 이유는 공과공부를 안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재미없음’이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공과공부 만족도\* (공과공부 하는 기독교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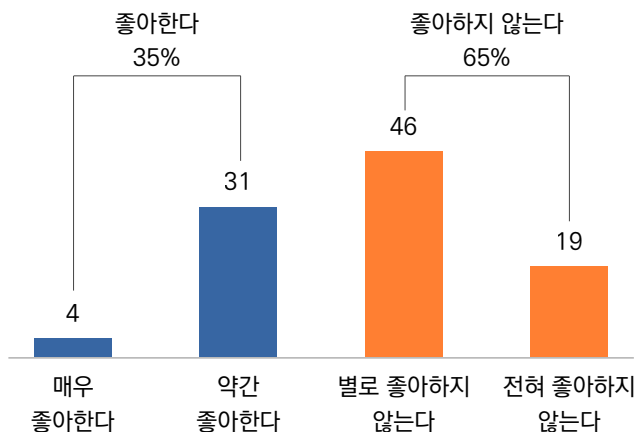


\*4점 척도임

##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 청소년 3명 중 2명은 ‘부정적’!

- ▶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개신교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좋아한다’가 35%, ‘좋아하지 않는다’ 65%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제자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 온라인 성경공부/제자훈련 선호도 (기독교 청소년, %)



# 시사점

보통 교회에서 정의하는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을 교회학교 학생'을 일컫는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올해 발표한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에 따르면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음 세대 교육 문제'(23%)를 꼽았고, 넘버즈 200호 특집으로 진행한 구독자 설문에서도 기독교 주제 중 가장 관심 있는 것으로 '다음 세대'(67%, 중복응답)가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과제이자 주요 관심 대상인 '다음 세대'는 현재 여러 조사 결과에서 위험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직후인 올해 5월 실시한 이번 기독교 청소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신앙 수준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 40%가 '신앙이 약해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장년 응답(32%)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개신교 청소년은 모태신앙 비율이 60%, 부모 중 1명 이상 기독교인 비율이 86%일 정도로 절대적인 부모 신앙에 영향 아래 있었는데 부모와 '자주 신앙적 대화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게다가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음' 또는 '관심 없음'이 주로 응답되어 영적 무감각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학교 인구는 동일 연령대의 인구 감소율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반 초중고 학생인구의 감소율은 19%인데, 교회학교 인구 감소율은 37%로 2배나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기독교 청소년에게 성인이 된 후 교회 출석 여부를 물어보니 34%의 학생이 계속 다닐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했다(그만 다닐 것, 모르겠음). 교회학교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들이 성인이 되면 1/3가량이 더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할까?

첫째로 다음 세대의 관심과 흥미(Interest)를 알아야 한다.

기독교 청소년들이 교회 예배에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찬양', '친구들과의 교제', '설교 말씀'이 24~28% 사이에서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과공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성경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라는 응답이 45%로 다른 이유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았다. '성경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의 '재미'란 무엇일까?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여기서 '재미'란 단순한 즐거움(fun)이 아니라 관심과 흥미(Interest)에 더 가깝다. 청소년들이 그 나이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만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공부 교재가 그러하듯 교회의 청소년부 예배나 프로그램을 보면 과거에 하던 것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은 달라지는데 교회는 안일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고민과 관심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Relationship)를 형성해 줘야 한다. 장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의 현장 예배 비율이 더 높고 온라인 예배 비율이 낮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청소년들은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 '관계성'을 중요시한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도 있지만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다. 온라인 예배는 두 번째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청소년들이 장년보다 현장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고 할 수 있다. '공과공부'도 '좋은 선생님(35%)'과 '좋은 친구들(29%)'이 있을 때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다른 구성원들, 특히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경험의 폭과 깊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방식을 조정하고,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면 신앙적 성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예장통합 교회학교 인구변화 기준